

전남도, 일상회복 앞두고 맞춤형 관광마케팅 시동

'남도 한바퀴' 운행 재개 '남도여행 으뜸상품' 인센티브 트래블 버블 국가 대상 홍보

전남도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전환에 맞춰 지역 관광산업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맞춤형 홍보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멈춘 '남도한바퀴' 운행을 재개하고, '남도여행 으뜸상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조기 예약 할인상품'을 준비하는 한편, 트래블 버블 국가 대상 전남상품 홍보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상품, 전남으로 체험여행 가자 특화 여행상품'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48개 업체 177개 여행상품을 선정했지만 코로나19로 운영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였다.

코로나19 완화 등에 대비해 7월부터 인센티브 지원 기준 완화와 지원금액 상향, 신청서류 간소화 등 정책을 추진해 여행업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7월 추진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정책은 지난해 10월 시작했으나 1개월만에 중단된 상태에서,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정부 정책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어려운 지역 관광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상품의 인지도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남여행상품을 판매

할 방안을 마련해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막혔던 해외 관광시장의 경우 트래블 버블 국가 대상으로 전남상품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외래객 유치에 나선다. 이미 지난 6월 외래객 맞춤형 관광 안내 키오스크를 무안국제공항에 구축했다. 해외 여행사와 항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인바운드 전세기 유치 등도 추진한다.

상반기에 일본, 구미주·동남아 등 랜선 라이브 투어 관광객에게 호응이 있었던 썬덱 만들기, 꽃차 만들기 등을 실제 전남에 와서 즐기는 상품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여수항, 목포항 등 항후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항만 VR영상 및 크루즈 종합 홍보물 등을 제작해 국제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11월 강원도 국제크루즈

루즈 트래블 마트에 참가해 홍보마케팅을 펼친다.

이외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미래관광을 위한 전남상품 인센티브 운영 자동 프로그램 및 전남패키지 관광상품 플랫폼 개발도 추진해 전남관광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전국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전남관광 콘텐츠 및 전남상품 본격 운영을 알리는 관광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의 관광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춘 전남의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이 전남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서 2000억 농식품 구매약정

농산업 비즈니스 중심의 종합박람회인 2021 국제농업박람회서 2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구매약정이 이뤄졌다.

전남도는 28일 박람회장인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농협중앙회, 와이마트(Y-MART)와 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의 전남 농식품 구매약정을 맺었다.

구매약정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석종수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분사장, 박석홍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김성진 와이마트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와이마트는 앞으로 1년간 2000억원 상당의 전남의 농식품을 구매하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농축특산물과 원예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인쇄비즈니스센터 개소

광주 인쇄비즈니스센터가 28일 동구 서남동 인쇄의 거리에서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국비 15억원, 시비 2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구축했다. 공용 장비실, 사무공간, 자료실, 전시홍보관, 교육장, 인쇄상품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갖춰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서남동 일대 인쇄의 거리는 1940년대부터 소상공인이 당시 전남도청 인근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때 업체 수가 310여개 달하는 호남권 최대 인쇄 집적지로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인터넷, 스마트 장비 보급으로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쇠락했다.

광주시는 인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모에 참여해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쇄-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역량 강화, 융복합 상품 개발, 국내외 마케팅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비즈니스센터가 상생과 동반성장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8일 오후 동구 서남동 인쇄집적지에 들어선 '광주인쇄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병훈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등 참석자들과 인쇄기술기반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화학분야 4개 기업과 360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전남도가 28일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제조 등 화학 분야 국내외 4개 첨단기업과 3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김만중 디렉스폴리머(유) 대표, 하형수 남해화학(주) 대표, 김준석 (주)본텍사 대표, 권기영 한화솔루션(주) 부사장, 강인규 나주시장과 박현식 여수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여수 국가산단에 3개, 나주 남평읍에 1개 기업이 들어서게 된다. 향후 235명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전국 최고 화학산업 인프라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갖춘 국내외 우수 기업의 투자를 끌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DL케미칼은 미국 렉스텍(REXTac)과 외투법인 디렉스폴리머(D-REXPolymer)를 설립, 여수 국가산단에 1500억 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초로 열로 녹여 붙이는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APAO) 생산공장을 구축한다. APAO 시장규모는 지난해 10조원까지 성장했으며, 2025년 1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이에스머티리얼즈는 남해화학(주)과 수도권 중견업체 (주)엔에프테크놀로지, 삼성물산이 합작한 신설법인이다. 여수 국가산단에 700억원을 들여 반도체용 황산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한화솔루션(주)은 여수 국가산단에 1200억원을 투입해 정밀화학-헬스케어 소재인 고순도 크레졸 생산공장을 갖추게 된다. 크레졸 세계 시장은 8000억 규모로, 연간 4%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본텍(주)은 나주 남평에 200억원을 투자한다. 휴대용 케이스, 자동차 번호판 지지대 등 탄소 섬유 강화 복합재 생산공장을 신설해 100여 명의 지역민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청년예술인·골프장 관계자 현장 소통행정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논의 골프장 서비스 개선 당부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 문화예술인과 희망 소통을 하고, 이용 불편 사례가 늘어나는 골프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골프 관계자 간담회를 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희망소통 간담회를 도청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다영 나주 빛가람 놀이터 대표, 곡성에서 작품활동

중인 최영수 작가, 정희수 호남신학대 교수, 전남도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인 남선아 씨 등 도내 중부내륙권 4개 시군에서 활발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 문화예술인이 참석했다.

청년 문화예술 사업을 주관하는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과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관계자가 참석해 이들과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머리를 맞췄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한 공연 취소와 전시, 출연기회 부족,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남도는 문화예술계의 어려운 현실에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자 문화예술인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인당 50만원씩 코로나19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공연, 행사대행업체에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 폐산업시설 8곳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해 작업실, 카페, 지역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으로 재공하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예술인 복지서비스 플랫폼 운영,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 다양한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이날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골

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골프장 운영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골프장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일부 골프장의 편법 운영에 대한 지적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상호협력 및 소통의 장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일 '골프장 갑질 횡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전남도의회 이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골프장 운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골프장 이용객 불만 사례를 공유하고, 만족도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남도는 지역민과 상생하는 선진적 골프장 운영 개선 대책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9.1.-10.31.

장소 | 광주비엔날레전시장, 광주디자인진흥원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협력주관 | 광주시립미술관

d-Revolution